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안전 실천해야

임무송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연론·제조·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산업안전 정책을 펼침에 있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기준 가운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안전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인 것과 동시에 그 가족, 그 공동체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은 또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물적인 가치만을 우선시 하다보면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줄어들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생산성 저하와 불량률 증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입장에서 안전은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Q. 우리나라는 지난해 0.65%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분야의 발전이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예방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7%, 0.69%, 0.65%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간 산업안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에 저는 우선 산안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산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느슨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지요. 즉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시·감독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경영진, 근로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노력과 근로자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특히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청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산업구조나 작업방식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복잡·다양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 서울청에서는 원·하청 공생 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협력업체끼리 합심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Q.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의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입니다. 저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등 대재난이 발생했지요. 저는 이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안전모, 비상 손전등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 용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급 받은 안전용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재난이 끝나고 한창 여진 등으로 위험수준이 높을 때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안전이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누가 감시해서, 감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안전이 체화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Q.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내 안전인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일컬어 소통과 공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안전 관계자분들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안전인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의 근간임을 명심하시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끊임 없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